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16호 [루게 제26090호] 주제 107 (2018)년 8월 4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평양무궤도전차공장과 버스수리공장에서 만든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보시였다.

최룡해동지, 오수용동지, 김수길동지, 황병서동지,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수도시민들의 교통문제 해결을 두고 언제나 마음 써 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당에서



기쁘고 더더욱 고맙다고, 대단히 만족하며 백점만점짜리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번엔 공장을 돌아보면서도 평가하였지만 이 공장은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높은 수준에 이른 전국의 본보기공장이라고, 우리 나라 분권기계 공장들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정돈된 공장이라고 치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일터를 알뜰하게 거두고 설비관리를 간지제 하며 생산과 경영활동을 잘하고있는데 대하여 못내

과일을 준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 전차를 짧은 기간안에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만사를 제치시고 폭 열이 쏟아지는 계년에 없는 무더위 속에서 또다시 수도려객운수부문의 현대화를 위한 현지지도를 진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뜻밖에 맞이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은 뚫어오르는 걱정과 흥분으로 가슴직시며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먼저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찾으시어 새형의 무궤도전차생산정형을 료해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 1월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새로 만든 무궤도전차를 보시고 인민들의 리 용에 편리하게 일부 요소들을 개작하며 기술적특성을 보다 경신할데 대하여 주신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한결같이 펼쳐나신 수도려객운수국과 평양무궤도

전차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역 경쟁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결사적인 투쟁을 벌려 짧은 기간에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생산하고 시험운행을 진행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차 조립직장을 찾으시어 공장에서 만든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무궤도전차를 손색없이 정말 잘 만들

었다고, 반년전에 비하여 무궤도전차의 질이 월등하게 개선되었다고, 2단계 현대화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차체외부의 굴곡면의 가공정밀도와 옆면의 평탄도, 이음짚치리수 등이 높아지고 도장도 잘하였다고, 모든 외장품들의 질과 문회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으며 바닥고무와 유리고무레 등 고무제품들과 수지장식합판의 질도 좋아졌는데 이 모든것이 다 우리 공장들에서 생산한것이라니 더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이 2단계 현대화공사까지 하면 세계적수준의 분권기계공장으로 전면변수 있는 전망이 확고하다고 하시면서 현지에서 2단계 현대화 방안을 료해하시고 제기되는 문제들과 해결방도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보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손로동을 줄이고 무궤도전차의 길쭉 최상의 수준으로 높일수 있게 이백진 공정들과 필수공정, 핵심공정들을 보강하여 생산공정 전반을 현대화, 자동화, 효용선화할데 대한 문제, 프레스공정을 중시하고 잘 꾸릴데 대한 문제, 도장도안을 잘하고 도색공정을 현대화할데 대한 문제, 기술자, 기능공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수준을 부단히 높일데 대한 문제, 부분품보장을 맡은 단위들에서 무궤도전차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책임적으로 생산보장할데 대한 문제 등 공장의 2단계 현대화와 생산장성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적극 밀어주셨으니 대담하고 용이 크게 목표를 세우고 2단계 현대화전투를 본때있게 전개하라고 하시면서 평양시뿐만아니라 전국적인 무궤도전차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고 무궤도전차를 계열생산, 대량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우리 나라 분전기계공정들을 대표할수 있는 공장으로, 나라의 리객운수문제, 대중교통운수문제를 푸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중추공장으로 전면시킴에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어 송산궤도전차시범소를 찾으시어 뽕수리공장 일군들과 연구사, 기술자, 기능공들이 새롭게 만든 궤도전차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형의 궤도전차에 제작과 운영인가가 적게 드는 교류전동기를 설치하고 전동기조종변환기와 조종프로그램을 연구도입하여 차의 기동과 속도, 제동특성을 개선하고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할수 있게 제작하였으며 바퀴와 주류변결부, 유리, 후사경, 바닥고무판, 수지장식합판, 의자 등 기계 및 전기 부분품들과 의장품들을 대부분 국산화

하였다는 일군들의 보고를 만족하게 들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수도 리객운수국과 평양무궤도전차공장, 뽕수리공장에서 인민을 위해 정말로 보람있는 큰일을 하였다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오늘날 하늘의 별이라도 따듯 기분이 들른다고, 년중 이렇게 기분좋은 날이 몇날이나 되겠는가 하시며 심중에 차오른 걱정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무궤도전차, 궤도전차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한 수도리객운수국, 평양무궤도전차공장, 뽕수리공장과 무궤도전차비귀, 유리와 각종 부분품들, 내부마감자재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한 련관단위들의 수고도 헤아려주시면서 당의 사상과 로선을 가장 절대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결사관철해나가는 이런 로동계급이 있기에 우리 리에게 똘지 못할 난관이란 없다고 하시

며 무궤도전차, 궤도전차생산에 기여한 전체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날 밤 새형의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의 시운전을 들소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해에 타고왔을 때보다 내부환경과 의장품들의 질과 문화성이 높아지고 전차운행시 소음과 진동도 적어졌다고, 모든 기술적특성지표가 정상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만든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들이 거리를 누비며 달릴 때에는 멋있을것이라고,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들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자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이라고 하시면서 수도 리객운수국문제해결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으신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여 우리 인민들이 남아빠진 대중교통수단을 리용

하며 불편을 느끼도록 하고 거리에는 택시들이 점점 늘어나는것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전망이 보인다고, 정말 만족하다고 기쁘신 마음 감추지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양무궤도전차공장과 뽕수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책임무정신을 안고 당이 제시한 새로운 투쟁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 앞에 맡겨진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과 뽕수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기들의 일머리에 또다시 찾아오시어 비약의 한걸음출발시킬수 있는 위창한 설계를 펼쳐주시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자기의것에 대한 금지와 자부심을 더해주는 계기

전국 8월 3일 인민소비품 전시회장을 돌아보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8월 3일 인민소비품 생산 운동은 군중의 창조성을 발동하고 내부예비를 동원리용하여 다양한 소비품을 생산할수 있게 하는 폭넓은 대중운동이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었습니다.》

전국 8월 3일 인민소비품 전시회가 평양제1대학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 시기에 비해 제품의 가지수가 3배에 달하는 28만 7300여종의 소비품들이 출품되었다.

각종 전지제품과 직물은 천류, 구두와 운동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신발제품 등으로부터 인민생활의 세부적인 요구를 반영한 제품들이 이르기까지 그 가지수는 실로 다채다양하다.

제품의 가지수가 더욱 늘어난 것도 좋은 일이지만 참관자들의 가슴을 흐뭇하게 하는것은 8월 3일 인민소비품의 질이 비약적으로 높아진것이다.

전시대를 돌아보는 참관자들이 만든 각가지 인민소비품들이 인민생활의 구성요소에 밀실히 필요한 명제품, 명상품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전시된 하나하나의 제품들을 통하여 우리는 가능한 모든 단위들에서 소비품을 생산할수 있게 되고나라에 대한 당정책을 심장으로 만들고 8월 3일 인민소비품 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여온 생산자들의 불같은 애국열의를 실감하게 된다.

새롭게 내놓아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인민들의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육용제품들은 수요가 매우 높다. 우리와 만만해당 단위 일꾼들은 앞으로 인민들의 가지수가 높은 육용제품들의 생산을 더 늘여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어디 도, 시, 군들에서 만들어 내놓은 각가지 초복제품들도 사랑들의 인기를 끌었다.

강원도에서 전시한 초복제품만 보아도 자기 지방의 특성이 잘 살아나서 참관도 몹시있게 만들어내놓았다고 평해주고, 너구두, 북부복무차 등의 제품들은 질이 좋아 이번 전시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색있는 울투전자, 울투국그릇, 울투담 등의 울투봉에 제품을 내놓은 평안북도진서도와 능계제품을 출품한 자강도진서도에서 도 참관자들은 쉽게 발품을 을 폐지 못하였다.

자기의것에 대한 금지와 자부심을 한껏 배우어주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또한 이례적으로 제품들과 어울려 앉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출품되어 더욱 흥미있었다.

평안남도도 보석비품, 강원도에서 내놓은 조각비품 만든 개구리합창단, 황해남도의 꽃병이

고 몇몇이 더 많고있다. 이 짧은 말속에 세손으로 창조적 씨앗을 고 몇몇이 더 많고있다. 이 짧은 말속에 세손으로 창조적 씨앗을

《인민들이 좋아합니다》

8월 3일 인민소비품의 질적 발전에서 비약이 일어났다. 이것은 전시회장을 찾는 참관자들의 일치된 평가이다.

그들의 평가에 전시회에 나온 이 부문 일꾼들과 기술자들은 한목소리로 답하고있다.

《아직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8월 3일 인민소비품의 질을 가까운 기간안에 더 높일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었다. 전시회에는 지난 시기와 달리 해당 단위들의 얼굴이 잘 나타날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 명인들이 누구나 좋아하고 인민생활향상에 실지 이바지할수 있는 작품들이 출품되어 많이 전시되었다.

평양시, 평안북도, 남포시에 서 출품한 각종 피복제품도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 제품들은 사용과정에 변형이 없고 자연성유를 리용하는것으로 하여 피부각각이 부드러우며 인체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

황해북도도 비롯한 각 도들에

혁신이 그대로 이어졌는것으로 하여 이 뜻을 찾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안겨주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진전을 더욱 가속화함에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총동력을 벌리고있는 비찬 시기에 열린 이번 전시회는 지역생성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갈 때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비약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생동하게 보여준 의미있는 전시회, 8월 3일 인민소비품 생산 운동을 힘있게 밀어붙이기 위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는 뜻깊은 전시회였다.

글 펜사기자 윤금찬
사진 김광림



《우리 고장》

이번 전시회에는 각 도마다 자기 고장의 얼굴이 뚜렷한 특색있는 제품들이 출품되었다.

8월 3일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언제나 앞장서고있는 평양시를 보면 17만여종의 소비품을 내놓아 참관자들의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신발, 가방, 피복제품들의 질적수준은 중앙제품 못지 않은 수준에 오른것으로 하여 그

제품입니다》

인기는 대단하다. 시인의 리용 생산단들이 여러 가지 자부리도 출품하였다. 볼살이 장미꽃을 닮고있다. 볼살이 장미꽃을 닮고있다. 볼살이 장미꽃을 닮고있다.

《우리 고장》

이번 전시회에는 각 도마다 자기 고장의 얼굴이 뚜렷한 특색있는 제품들이 출품되었다.

대동강기슭에 넘쳐나는 인민의 기쁨

우리 인민의 마음과 생활속에 신선하게 자리잡은 문수물놀이장.

고온현상이 지속되고있는 지금 문수물놀이장은 알뜰하고서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먼길 호응이 있다. 그야말로 사람山人海이다. 폭양이 내리쬐이건만 흥분하게 꾸민 문수물놀이장의 밝고 밝은 시원한 물속에서 좋아라 물장구치는 아이들과 작게 웃는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대동강기슭에 가득히 넘쳐흐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릴없이 갈살아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것이 우리 당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물놀이장이 흥하는 정다운 물소리, 여기저기서 울리는 행복의 웃음소리, 환호소리...

울려퍼지고 내리쬐고 앞으로 치달은 활활적인 모양에 색깔도 다양한 아름다운 물끄러미들 높은 곳에서 흐르듯 이곳에 배마 오는데 물때마다 정갈 시간 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시원한 물속에서 하루종일 물장구치고 있는 정경이라고 말하는것이다.

옆에 있던 남들도 뒤질세라 한마디 하였다. 물놀이도 좋지만

여러가지 문물과 미용품을 합수 있는 재미가 역시 무척이다.

우리가 실내체육관에 들어서니 아니나다를까 그곳은 그곳대로 흥성거리고있다. 비구를 비롯 한 여러 종류의 경기장에서는 승부겨루기가 한창이었고 한쪽에는 볼링이 한창이었고. 그밖에 이렇듯 모양도 각이한 볼링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이 미처는 관심이 없었지만 문수물놀이장은 온 사람들이 즐겨찾는 곳의 하나인 운동기계를 사기도 팔기도 하는 사람들이 온종일이 열었다.

우리와 만만해당 단위의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한민 운동회고나면 온 몸이 거뎈해지고 새 힘이 솟는것은 10년은 젊어지는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팔을 흔들어 리고 힘껏 물을 뿌려주며 즐겁게 놀 놀이 하는 처지를, 물장구칠 것이 좋아와 깔깔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물끄러미들 타고내리던 사람들이 수조에서 떠다니는 물이 한데 어울려 물놀이장을 들뜨게하는구나.

과도한 물을 내달기엔 위험이 있으리라는 사람들이 모두가 삼복복앙이 아무리 사정없이 꾸미고 온 인원이 없는것을 꼭꼭 흔들어 놓을수 있다.

동대원구역에서 신다는 한 너센은 가족과 함께 이곳에 배마 오는데 물때마다 정갈 시간 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시원한 물속에서 하루종일 물장구치고 있는 정경이라고 말하는것이다.

옆에 있던 남들도 뒤질세라 한마디 하였다. 물놀이도 좋지만

있는 봉사자들에게 사람들의 걸음이 그렇게 쉽다.

우리는 아이들놀이장의 정경이 한눈에 안겨오는 실내물놀이장 도대대 나갔다. 내리쬐이는 햇빛이 한껏 달아오른 대기가 내뿜는 열기로 우리 온몸은 순간에 불타오르며 되었다. 그러나 이렇듯 모양도 각이한 볼링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이 미처는 관심이 없었지만 문수물놀이장은 온 사람들이 즐겨찾는 곳의 하나인 운동기계를 사기도 팔기도 하는 사람들이 온종일이 열었다.

우리와 만만해당 단위의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한민 운동회고나면 온 몸이 거뎈해지고 새 힘이 솟는것은 10년은 젊어지는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팔을 흔들어 리고 힘껏 물을 뿌려주며 즐겁게 놀 놀이 하는 처지를, 물장구칠 것이 좋아와 깔깔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물끄러미들 타고내리던 사람들이 수조에서 떠다니는 물이 한데 어울려 물놀이장을 들뜨게하는구나.

과도한 물을 내달기엔 위험이 있으리라는 사람들이 모두가 삼복복앙이 아무리 사정없이 꾸미고 온 인원이 없는것을 꼭꼭 흔들어 놓을수 있다.

동대원구역에서 신다는 한 너센은 가족과 함께 이곳에 배마 오는데 물때마다 정갈 시간 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시원한 물속에서 하루종일 물장구치고 있는 정경이라고 말하는것이다.

옆에 있던 남들도 뒤질세라 한마디 하였다. 물놀이도 좋지만

얼음불 한고뿌

고온현상이 지속되면 며칠 전 어느날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용광로직장의 작업현장으로 얼음불이 가득 담겨진 용기들을 안고 기업소의 일꾼들이 돌아갔다.

《몇시간에 가져다준 얼음들이 아직 있는데...》

직장장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한 일꾼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도 금방 평강고에서 가져온것보다야 못하지. 어서 얼음이 녹기 전에 마시시오.》

뒤이어 얼음이 뜨겁든 물고뿌들이 용해공들에게 안겨졌다.

그래서 더욱더 쉬이 마실수 없는 얼음들이었다.

얼음불 한고뿌, 물론 새한 얼음을 내놓는 용광로로 물을 식히기에는 너무도 불찰이었다.

하지만 용해공들은 그 얼음을 한고뿌를 위해 무더기 쌓을수 있음이 오가며 맘을 졸이는 일꾼들의 모습에서 자기들을 위한 애절한 사랑과 정을 느꼈다.

작업현장의 온도는 이전 같지 않던 로동제급의 눈빛 한 줄이 온순해서 조금도 차가 없었다.

참으로 많은 의미가 담겨져있는, 무심히 마실수 없는 얼음들이었다.

의사들의 순회길

돌이간 의사가 또다시 나란났을 뿐 한 조사공이 골골히 웃었다.

《그리다 의사선생이 먼저 쓰러지셨어요.》

살뜰한 그의 말에 의사는 탐호르른 얼굴을 손수건으로 문지르며 말했다.

《이런 무더위속에서도 일손을 놓지 않고 순회길 모를타는 조사공들을 볼때면 정말 생각이 많아요. 내가 아무리 바쁘게 다닌들 그들이 걸는 순회길에

비기겠어요?》

조사공들의 건강상태를 일일이 점검해본 의사는 종종이 또다른 뜻으로 걸음을 옮겼다.

말이 저가하는 의사의 잔등은 땀으로 흥벅 젖어있었다.

의사들의 순회길, 이것은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며 모를타는 조사공들을 위하여 부무하는 우리 사회주의사회에서 단 재겨칠수 있는 아름다운 자취이다.



연구사들을 올린 선봉기

어느날 평양조명기구공장 조명공학연구소의 어느 한 방에서는 선봉기를 가운데 놓고 방장을 한 일꾼과 연구사들이 가벼운 형성이가 벌어졌다.

일꾼이 부러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건 뭐요, 다 생각이 있어서 가져다주었는데 내 방에 다시 가져다놓다니.》

연구사도 민망치 않았다.

《우리 방에는 뭐 선봉기가 없습니까, 그러지 말고 어서 가져가주세요.》

누구도 험사리 불려질 기미가 아니었다. 나중에는 일

연구사들은 자기들을 위해 선봉기를 가지고는 일꾼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받아들일수 없었다. 늘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는 일꾼이 어쩌다 사무실을 들어가서 땀을 흘리자면 선봉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연구사들의 생각이었다.

《여기가 선봉해야 나도 자주 와서 땀을 흘릴수 있지 않겠소. 땀을 흘릴수 없는데 땀을 흘리자면 선봉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선봉기의 전염을 넣으며 일꾼이 하는 말이였다.

펜사기자 신철

긴급히 의뢰된 안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의 인민권, 인민협회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행정에 걸쳐 구원할수 있고 우리 식 사회주의는 가장 우리식 혁명적인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로 공고발전되었으므로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넘김없이 발휘하고있습니다.》

얼마전 평안북도인민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날 병원에서는 의료일꾼들은 물론 보강부서 심원들까지도 모인 가운데 긴급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의 토의안건은 최근 고온과 무더위현상이 지속되는 데 맞게 인민들의 건강을 최대한 잘 돌보는데 대한 문제였다.

회의의 전에 없던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것은 그때부터였다.

회의에서는 우선 현재 우리 나라에서 지속되고있는 고온현상과 그 진행에 대하여 홍보의 중요성을 의결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상의가

평안북도인민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날 병원에서는 의료일꾼들은 물론 보강부서 심원들까지도 모인 가운데 긴급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의 토의안건은 최근 고온과 무더위현상이 지속되는 데 맞게 인민들의 건강을 최대한 잘 돌보는데 대한 문제였다.

회의의 전에 없던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것은 그때부터였다.

회의에서는 우선 현재 우리 나라에서 지속되고있는 고온현상과 그 진행에 대하여 홍보의 중요성을 의결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상의가

무더위가 지속되고있는 요즘 수도시민들 누구나 즐겨찾는 곳이 있다. 거리마다 산뜻하게 꾸민 빙수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일꾼들이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며 배이 닳도록 뛰고 무장하게 하고 인민들에게 유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면 그들이 언제 어디서든 심장으로 부터 우리나오는 로동당만세를 부르게 될것입니다.》

달아오른 가슴들을 시원히 식히며 웃음꽃을 피우고있는 사람들의 밝은 모습에 물러서 우리가 중구역에 위치한 어느 한 빙수대를 찾았을 때였다.

《봉사원들무, 난 빙수수가 좀 더구만, 한그릇 가득 주시오.》

《우린 도마도빙수를 주십시오.》

빙수대대를 찾아온 손님들이 저마다 자기의 기호에 맞는 빙수를 정하는 속도도 놀림이 되었다.

《복사원들무, 난 빙수수가 좀 더구만, 한그릇 가득 주시오.》

《우린 도마도빙수를 주십시오.》

빙수대대를 찾아온 손님들이 저마다 자기의 기호에 맞는 빙수를 정하는 속도도 놀림이 되었다.

《복사원들무, 난 빙수수가 좀 더구만, 한그릇 가득 주시오.》

《우린 도마도빙수를 주십시오.》

흥성이 는 빙수대대들

사람들이 시원하게 빙수를 들며 미치 흐르는 땀을 흘리며 웃으며 봉사하는 모습은 우리의 감동을 자아냈다.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수고가 많다는 우리의 말에 봉사원은 웃으며 대답하였다.

《최근에 우리 빙수대대를 찾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더니 인민들의 수가 늘어났다고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시원한 빙수를 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때면 막힘이 없습니다. 빙수 한그릇은 비록 작고 소박해도 인민들은 그것을 통해 당의 사랑을 느끼게 될것입니다.》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였다.

본국 시민위원회회의 한 일꾼이 하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빙수의 맛과 그 위생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빙수공의회와 시식회를 조직하고 원자재보장대책을 세우며 올해에도 해당질부터 시인의 수많은 빙수대대들이 봉사할 활발히 진행되고있다는 것이다.

시인의 많은 빙수대대들에서 봉사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손

일꾼이 뜨거워져서 하던 이야기 금시라도 들려오는듯했다.

진정 사람들이 즐겨찾는 빙수 한그릇에도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여있는것인가.

인민들이 드는 빙수 한그릇에도 이렇듯 다심한 정이 깃들여있을때에 배에 없는 삼복열의 폭이 아무리 뜨겁게 내려도 인민들 머는 걱정이 없으리라.

빙수대대를 떠나는 우리에게는 그곳 봉사원들은 한목소리로 말했다.

《인민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유광진



